



새학기, 우리 아이 알레르기질환 미리 대비하세요!



알레르기란 무엇일까요?

일반적으로 해롭지 않은 외부 물질에 대해
우리 몸의 **면역체계가 과민반응**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.

원인 물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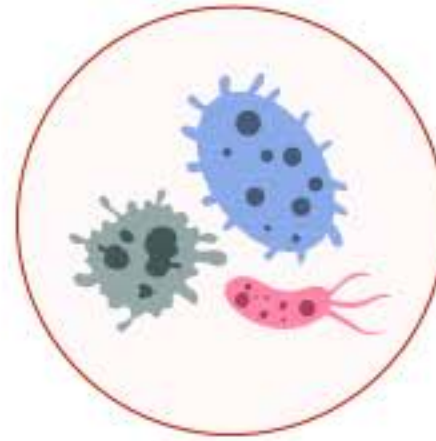
집먼지 진드기



꽃가루



반려동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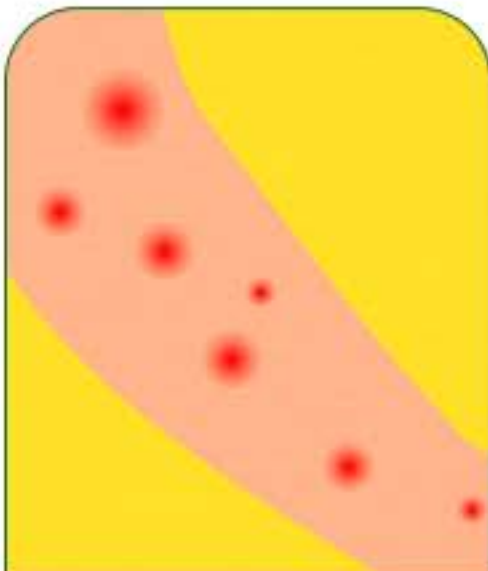


곰팡이



음식물

알레르기질환 유형



아토피
피부염



천식



알레르기
비염



식품
알레르기



아나필락시스

알레르기 질환 진단율, 과거보다 증가했습니다!

최근 알레르기 비염 진단율은 20년 전에 비해 2.5배 증가했습니다.

알레르기 비염



2005년
8.3%



2024년
20.9%

약 2.5배 ↑

천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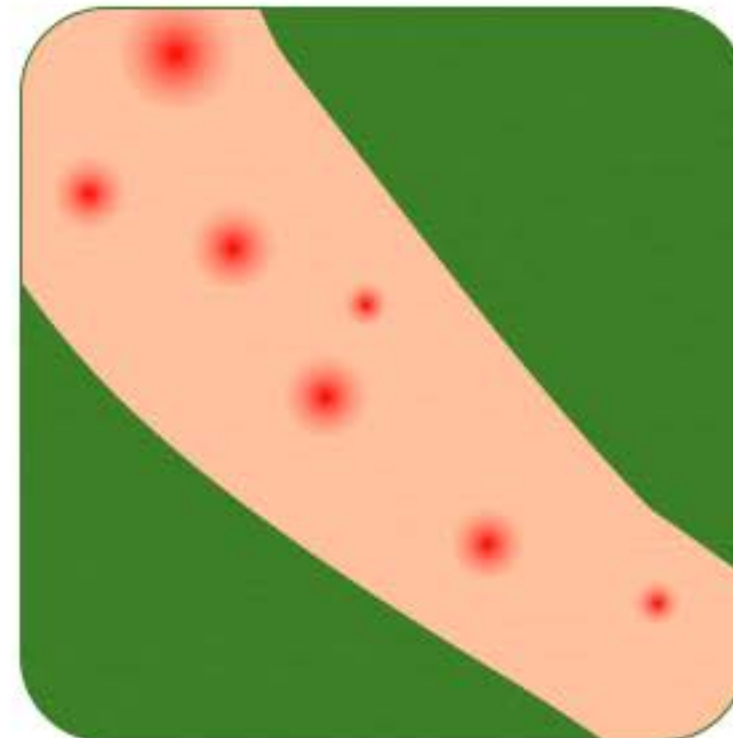
2005년
2.1%



2024년
3.4%

약 1.6배 ↑

아토피피부염



2010년
3.3%



2024년
6.6%

약 2배 ↑

*출처: 「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」, 질병관리청



알레르기질환,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!

평소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,
언제든 **응급상황**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가벼운 증상



콧물



재채기



가려움



응급상황



호흡곤란, 저혈압 등

심한 알레르기 반응은
단 수분 만에 **심정지나 뇌 손상을 유발**할 수 있어
빠른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.



가을학기, 알레르기질환 유발요인·대처방법을 미리 알아두세요!

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면
알레르기 **응급상황에 더 안전하게 대처**할 수 있습니다.



개인별 알레르기질환 유발요인
숙지하고 예방하기



에피네프린 자가주사법,
흡입기 사용법 등
응급상황 대처방법을 숙지하기





알레르기질환, 학교에서도 함께 대비합니다!

질병관리청은 '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'와 '안심학교'를 통해 예방 교육과 학교 내 응급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.

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



알레르기질환의 조기 인지부터 상시 관리까지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·상담을 제공

16개 광역지자체 중 10개 지역 내 11개 센터 운영

안심학교



매년 유치원·어린이집·초·중·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'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'로 지정

2026년 기준 전국 4,673개소 지정

또한 지역별 '찾아가는 교육'을 통해 알레르기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교육합니다.



알레르기질환으로부터 안전한 새학기,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.

**개인별 유발요인을 예방하고
응급상황 대처방법을 미리 숙지해 주세요!**

